



광주민예총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지난 2019년 개최한 광주민족예술제 장면.

〈광주민예총 제공〉

예술, 지구의 봄날을 기원하다

광주민예총, 17일 5·18민주광장서 '광주민족예술제' 15개 단체 200여명 참여 전시·체험·공연·시낭송 등

무한생산 무한소비는 점점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예술을 매개로 지구의 봄날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민예총(회장 박종화)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민족예술제를 연다. '예술, 지구의 봄날을 꿈꾸다'를 주제로 모두 15개 단체 2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석해 펼쳐지는 이번 예술제는 전시, 체험, 공연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포괄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먼저 17일 오후 2시부터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광주민족미술인협회의 '기후의 정의와 모두의 예술'전이 눈에 띈다. 전시는 기후 난민, 기후 소외층 등 기후 위기가 끼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한국현대사진가협회의 '지구의 아우성'전은 소비와 성장 중심으로 자

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주목한다. 체험에는 빛고를 풍물두레 물들꽃의 '맑은 물차 나눔'을 비롯해 한사랑예술단의 '무궁해 전통 옛 나눔' 및 옛가락춤 체험, 내뽕소리민족예술단 '전통악기 체험'이 마련돼 있다. 또한 광주전남작가회의 '작가 사인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분리배출 OX 게임,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요', 풍암전환마을 '재생에너지체험'도 펼쳐진다.

본 공연은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다. 한사랑예술단과 풍물두레물들꽃, 내뽕소리민족예술단의 '물의 노래'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이번 공연은 삶의 어머니인 물과 아버지인 공기를 아끼고 지켜가자는 의미의 행위예술로 이루어져 있다. 광주전연산강 발원지인 무등산 장불재 시원샘 아래 용추폭포의 물을 받고 이를 5·18민주광장으로 날라와 온누리에 물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의 '시낭송'도 준비돼 있다. 다섯 명의 시인들이 지구 위기와 환경에 관한 시

를 창작해 낭송한다. 김애숙, 신남영, 한경숙, 정양주, 박시영 시인이 참여한다.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춤추는 나무의 '할머니와 시계토끼'는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줄 신비한 나무를 지키는 서낭할미와 지구의 수명을 알려주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토끼가 만나 지구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 위기 대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재활용품을 이용해 악기를 제작하고 기후 위기 극복과 환경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오월음악의 '툰베리의 메시지 & 같이 살자'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씨소뮤지컬컴퍼니의 '뮤지컬 유리다운 갈라쇼'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료 공중화장실이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물린다는 모티브를 매개로, 기후 위기 해법에 대한 성찰을 담아낼 예정이다.

더불어 푸른솔합창단이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2곡을 선보이고 극단각지는 '춤추는 별주부전'을, 굴림은 '무등산 샘'을 펼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민예총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정재 또 한번의 전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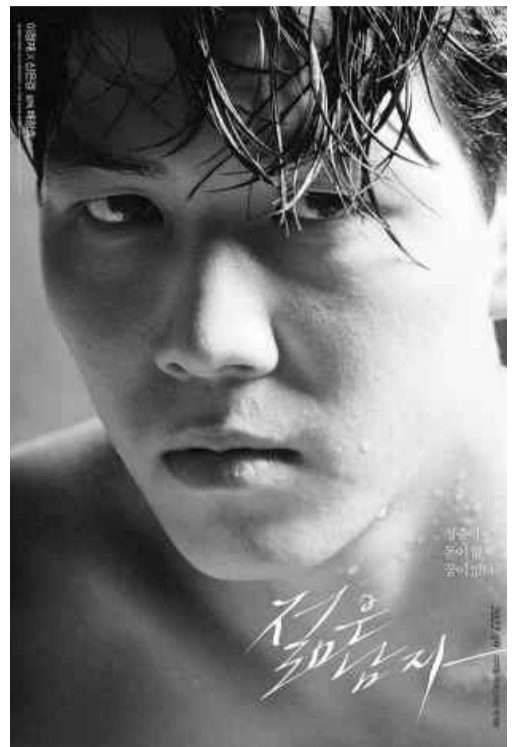
'스타워즈' 출연, '헌트' 감독 데뷔... '젊은 남자' 29일 재개봉

배우 이정재(50)가 12일(현지시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아시아 국적 배우로도 최초 기록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들어 올린 연기상 트로피다. 앞서 이정재는 미국배우조합상, 스피릿어워즈,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에서 사채업자들에 쫓기다 생존 게임에 참가한 주인공 성기훈을 연기했다. 술과 도박에 빠져 폐인처럼 살아가면서도 사람에게 대한 믿음만큼은 놓지 않는 인물이다.

그동안 '폼 나눈' 배역으로 국내에서 안방과 스크린을 오가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이정재는 이번 작품에서는 지질한 중년 남성 역을 맡아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후줄근한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장 바닥에 쭈그러 앉아 달고나를 정신없이 훑아대는 모습은 기훈의 절박한 처지를 시청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28년만에 재개봉하는 '젊은 남자' 포스터

모델 일을 하다 1993년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연기 데뷔를 한 이정재는 청춘스타로서 제1의 전성기를 누렸다. 1990년대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 (1995)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윤해린(고현정 분)의 보디가드 백재희 역을 맡은 그는 한 발 뒤에서 해린을 묵묵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여심을 흠뻑했다.

이후 영화 '태양은 없다' (1999)로 27살의 나이에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 작품을 통해 연에게 대표 '절친'으로 소문난 배우 정우성과 인연을 맺었다.

그렇다고 젊고 멋진 배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30·40대 배우로서 변화무쌍한 캐릭터들을 소화하며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갔다. 작품마다 180도 바뀐 모습으로 다양하게 등장해 '캐릭터 수집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영화 '정사'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옛된 청년 우인, '선물'에서는 시한부 통보를 받은 아내만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는 무명 개그맨 옹기, '태풍'에서는 강인한 해군 장교 강세중, '사바하'에서는 신홍교단체의 실체를 쫓는 속물 박목사,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에서는 형제를 죽인 청부살인업자를 향한 복수를 꿈꾸는 레이 역으로 매력을 발산했다.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작인 임상수 감독의 '하녀' (2010)에서는 욕망에 충실한 주인집 남자 훈으로 분해 특유의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이후 영화 '도둑들', '신세계', '관상', '암살', '신과 함께' 등 출연 영화들을 연달아 히트시켰다. 천만 관객을 넘어선 출연작이 4개나 된다.

지난해부터는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 스타로 등극하며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았다. 당당히 세계적인 배우로 오르면서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 (The Acolyte) 주인공에도 캐스팅됐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많은 팬을 확보한 대중문화 콘텐츠여서 이정재는 이를 계기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이정재가 4년간 공들여 만든 첩보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를 한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이정재가 각본부터 연출, 연기까지 맡은 '헌트'는 칸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공개됐는데, 영화가 끝난 이후 긴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개봉해 관객 4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6년 전부터는 절친 정우성과 함께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운영하며 사업가로서 역량도 입증하고 있다. 아티스트컴퍼니에는 배우 안성기, 염정아, 고아라, 박소담, 이음 등이 소속돼 있다.

이정재가 정점이라고 여겨지던 시기를 지나서도 또다른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 근성 덕분이다.

이정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기대치만큼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작품에 임하는 태도를 밝혔다.

한편 이정재의 스크린 데뷔작인 '젊은 남자' (1994)가 오는 29일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배창호 감독이 연출한 '젊은 남자'는 스타가 되기 위해 질주하는 모델 지망생 청년의 꿈과 사랑을 그린 영화다. 이정재와 신은경·이응경·김보연·전미선이 출연한다. 개봉 당시 스물두 살이던 이정재는 이 영화로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자배우상,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연기상,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남자배우상을 휩쓸었다.

배급사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 포스터를 제작해 공개했다. 개봉 당시 구본창 사진작가가 촬영한 이정재의 흑백사진을 썼다. /연합뉴스

'귀로 보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 열린다

18일 광주독립영화관... '괜찮아' '고마운 사람' 등 7편

영화 관람에 제한이 있는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상영회가 오는 1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사)광주영상영화인연대는 부산 문화예술단체 '꿈꾸는베프'와 영화에 원래 없었던 음성해설이나 자막을 추가한 영화를 상영한다.

꿈꾸는베프는 2022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 '귀로 보는 영화 제작소'를 통해 부산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배리어프리 영화를 비평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상영회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의 단편 영화를 화면해설 작가와 장애인들의 감수를 받아 배리어프리 화면해설영화로 제작해 상영

한다.

상영장은 5·18 40주년 특별전 상영작인 '괜찮아', 제9회 인천독립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고마운 사람'을 비롯해 '당신은 안드로이드입니까?', '맛의 기억', '악몽의 원리', '흔한 이름' 등 총 7편이다.

또 같은날 '맛의 기억' 조재형 감독과 시각장애인 감수자 6명은 간담회에서 영화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의견 전달 등을 통해 지역 영화 산업과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확산을 위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온라인 상영회를 통해 전국의 시



'맛의 기억'

각장애인이 이번에 제작된 배리어프리 화면해설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무료 관람. 문의 062-222-189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